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루카 12,49-50)



〈그리스도의 얼굴〉, 조르주 루오

[제1독서] ..... 예레 38,4-6.8-10

[화답송] ..... 시편 40(39),2ㄱ-2ㄷ-3.4.18  
(©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 히브 12,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 12,49-5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1] 주 하느님
- 봉헌성가: [459] 너희는 가진 것 팔아
- 성체성가: [343] 하느님의 어린양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 파견성가: [44] 평화를 주옵소서

✠ 묵상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 have come to set the earth on fire,  
and how I wish it were already blazing!

There is a baptism with which I must be baptized,  
and how great is my anguish until it is accomplished!

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establish peace on the earth?

No, I tell you, but rather division.

From now on a household of five will be divided,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a father will be divided against his son

and a son against his father,

a mother against her daughter

and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두고 당신 마음의 내면을 관찰하도록 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내면에서 깨끗하게 씻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불은 벌써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신자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이런 불의 시험을 겪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암시하시는 세례는 번민과 고난과 더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신 뒤에 죽음에 잠기실 당신의 수난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얻는 그런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 주는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불을 통한 정화, 빛과 어둠, 악과 불의, 억압과 무관심, 거짓과 불의한 상황에서 안락한 생활에 맞선 선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대립 상황은 모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믿음과 일관되기를 바라는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유다교 회당이 나자렛 예수님을 하느님의 메시아로 고백한 모든 유대인에게 파문을 선언하였을 때(기원후 90년 암니아 회의)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가족애와 물질 집착보다 하늘 나라의 가치를 첫자리로 놓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도록 제시합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49)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내리기 위해 당신이 ‘세례’ 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짓눌려야 하겠느냐” 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란 곧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흘리실 ‘피’ 가  
 곧 ‘불’ 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불타게 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와 맺어야 하는 계약은 ‘피’ 로 맺는 계약이기도 하면서(마태 26,28 참조) ‘성령’ 으로 맺는 계약이기도 합니다(2코린 3,6 참조). 이렇듯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1요한 5,8 참조).

그런데 주님의 성령은 어떤 이에게는 은총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 불은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였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 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창세 19,24 참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주실 성령의 불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 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생명나무를 먹기에 합당하지 않게 된 아담과 하와를 불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튼들이 들고 있는 그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은 “불에 타는 산” (신명 9,15)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령의 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이 사실 거룩한 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물이 봉헌되어야 하는데(1역대 21,26 참조) 그 제물이란 바로 ‘자기 자신’ 입니다.

엘리아가 소를 잡아 제단에 놓고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소를 살랐듯이 누구든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려 계속 타고 있을 재료를 잃게 됩니다(1열왕 18,38 참조).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1테살 5,19)라고 하는데, 그 불을 스스로 꺼버리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뜻을 제물로 봉헌하지 못하여 주님의 뜻인 이웃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입니다(루카 12,57-59 참조).

<catholic.or.kr>

목 상

### 마음 속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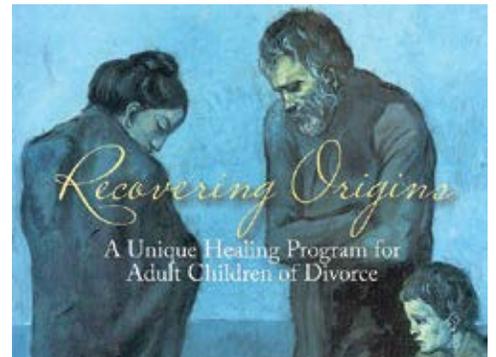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이 타오릅니다.  
 세례를 받던 그 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날.  
 그분의 빛을 받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이...  
 지금도 우리 맘속에서 타오르고 있나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49)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 Retreat for Adult Children of Divorce

알링턴 교구 주최



- ▷ 일정 : 8월 30(금) 오후 6시 - 9월 1일(일) 오후 1:30 (Fee : \$350)
- ▷ 장소 : Sam Damiano Spiritual Life Center (125 Old Kitchen Rd, White Post, VA)
- ▷ 등록 : [www.arlingtondiocese.org/healingretreat](http://www.arlingtondiocese.org/healingretreat)



### 교황, 유엔 ‘세계 청년의 날’ 맞아 “초월성으로 열린 교육” 강조

8월 12일은 유엔이 1999년 지정한 ‘세계 청년의 날(YD)’이다. 올해 주제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으로, 접근가능하고 포괄적인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윗 메시지를 통해 초월성으로 열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상은 지금보다 젊었던 적이 없었다. 오늘날 지구상에 10-24세 젊은이들 약 18억 명이 살고 있다. 대다수가 학교에 다니지만, 6-14세 어린이들과 사춘기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기초 수학능력과 독서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12일은 지난 1999년 유엔이 지정한 ‘세계 청년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transforming education)”이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 젊은이 단체들,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며 어디서든지 젊은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기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다음과 같은 트윗 메시지를 게시했다. “초월성으로 열린 지평을 가진 교육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건설하도록 젊은이들을 도와줍니다. #YD2019”

이하 페루시아 대학 심리교육학자 파브리치오 카를레티(Fabrizio Carletti)와의 일문일답:

**Q** 교황님께서 트위터에서 교육의 주제를 초월성의 주제와 연관지으셨습니다. 두 주제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초월성(Trascendenza)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육적이고 양성적인 경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큰 잠재력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초월성’이라는 용어 안에 유엔 문헌이 사용하는 표현도 언급된다는 점은 아름답습니다. 횡단, 지나감의 경험, 다시 말해 종종 우리 어른들에 의해 결정되고 특정되며 생성되는, 미리 형성된 모델을 넘어서는 ‘초(trans, 超)’라는 접두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새로움이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이미 정해진 모델 안에서 교육과 양성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교황님은 변화의 시대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와 같이 필요한 변화를 생성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Q** 변화시키는 교육이지만 변화되어야 할 교육, 가장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교육. 이러한 것이 유엔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개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주의로부터, 자신의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며, 더욱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문헌들이 종종 상기시키는 생산성, 행복, 평화는 오직 ‘함께 있음’을 통해서만 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초월성으로 열린 지평을 가진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을 꿈꿀까요?

“젊은이들의 꿈꾸는 역량은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어른들과 노인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자나 선생님에 대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 안에서 희망을 잉태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인생이 속임수가 아니라, 투신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교황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듯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젊은이들에게 이해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Q** 유엔은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교육을 17개 의제에 포함시켜 2030년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육이 젊은이들에게 장소, 공간, 일터들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어려움에 투신하고, 재능이나 처음으로 보였던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단순히 (무언가를) 습득해야 한다는 모델로 제시하는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재능을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참되고 고유한 ‘양성을 뛰어넘는(trans-formativa)’ 교육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의 재능을 기존 모델의 논리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권한부여(empowerment)’의 논리에서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현실보다 더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을 남길 수 있는 주체의 능력을 뜻합니다. 일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자면 휴머니즘의 전형적인 경험, 다시 말해 고대 장인들의 작업소를 상상하게 됩니다.”

<http://www.vaticannews.va/ko/pope/news>

### 20<sup>TH</sup>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8, 2019

#### Fire in Our Hearts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says that He has come to set the earth on fire.

Of course He didn't mean that He wanted everything to burn up. He meant that he wanted the flame of the Holy Spirit to burn in the heart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What do you think happens when the Holy Spirit is in someone's soul? The Holy Spirit pulls us closer to Himself and God the Father and Jesus. When we are closer to God that means we love Him more, and the more we love God the more we will love other people too. We were made to love God and be happy with Him, so we want the Holy Spirit to live in us and bring us close to Him!

**How does the Holy Spirit come into our souls?** When we are baptized, the Holy Spirit comes into us for the first time. He will stay with us unless we sin and close our hearts to Him. But when we go to Confession He comes back, and in Holy Communion and the other Sacraments He becomes even stronger in us.

He comes in a special way in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when He gives us grace and strength to live as grown-up Christians and soldiers for God. **Pray to the Holy Spirit to live in your heart and make you love God more every day!** <<https://www.thekidsbulletin.com>>

#### Follow the Leader Fill in the blanks

Use the words from the list to fill in the blanks and unscramble the letters from the brackets to fill in the spaces at the end.

[HEB 12:1-4]

Brothers and sisters:

Since we are surrounded by so \_\_\_\_\_ ( ) a cloud of witnesses, Let us rid \_\_\_\_\_ ( ) of every burden and sin that clings to us and persevere in \_\_\_\_\_ ( ) the race that lies before us while \_\_\_\_\_ ( ) our eyes fixed on Jesus, the leader and \_\_\_\_\_ ( ) of faith. For the sake of the joy that lay before \_\_\_\_\_ ( ) He endured the cross, \_\_\_\_\_ ( ) its shame, and has taken his seat at the right of the \_\_\_\_\_ ( ) of God. Consider how he \_\_\_\_\_ ( ) such opposition from sinners, in order that you may not grow \_\_\_\_\_ ( ) and lose heart.

\_\_\_\_\_ , \_\_\_\_\_ !

### 2019 동중부 한인 성소 기도의 날 Korean American Day of Prayer

Vocations Conference 2019



“COME AND SEE”

John 1:39

SATURDAY, SEPT. 21, 2019

2019년 9월 21일(토)

St. Paul Chung Korean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Questions: (703) 403-1185

#### FEATURING



Fr. Inhyun Paik  
백인현 신부



Fr. Dooyoung Kang  
강두영 신부



Fr. Joe Kim  
김인 신부



Fr. Joseph Kim  
김요셉 신부



Fr. Michael Isenberg  
마이클 아이센버그 신부



Zinjin Iglesia  
진진 이글레시아



Sr. Christina Chong  
정크리스티나 수녀



Ji Choi  
최지경



#### WORD LIST

- |           |           |         |
|-----------|-----------|---------|
| ENDURED   | WEARY     | THRONE  |
| OURSELVES | HIM       | RUNNING |
| PERFECTER | GREAT     |         |
| KEEPING   | DESPISING |         |

• Raphael • **SUMMER CAMP**

Aug 9 - 11, 2019    LOST CITY, WEST VIRGINIA



**R**aphael Camp was a great bonding experience with fellow members! It was a great getaway from everyday life! We grew closer with God through praise and small group talk! We also had the chance to write to fellow members attending about the one talent God gave to each member definitely recommend for any upcoming, interested Raphael members!

- YULIS YOON



**I**t was nice to see everyone before going back to college again. I had a memorable time with the Raphael family and built a stronger bond with them. I'll miss them and I can't wait to see everyone again!

- HYOON LEE



**W**ith the summer coming to an end, many Raphael members feel bittersweet about going back to college. But with an event that allowed us to get closer to God and to say our last farewells to each other, Raphael camp part 2 was the best way to conclude this year's summer. - HYUNSOO LIM

» ANNOUNCEMENT

**1 Registration Service for SPC Sunday School**

- **When:** 8/4-8/25(Sundays), after 10 am Mass
- **Where:** Hasang Bldg. Office
- **Registration Fee:** \$80/student
- **Ques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2 We're looking for Sunday School Volunteers**

- **Positions:** Catechists(K-12<sup>th</sup>), Assistant Catechist, Office Assistant
- **Question?** Contact *parish office* or *Sunday school office*

**3 The First Day of Sunday School 2019-2020**

- **When:** Sunday, Sep 8, 10am

**1** **하상회 정기 모임**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30(B-3,4)

**2** **안나회 정기 모임**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30(A-1,2,3,4)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40(하상관#4,5)

**4** **제81차 예비자 교리반 모집**

• 접수 :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입학식 : 9월 8일(일)  
 • 교리 교육 일정 : 6개월 (오전 11:30, 하상관 #110)  
 • 문의 : 사무실 (703)968-3010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 (703)203-0332

**5** **제80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참고**

• 종합교리 : 8월 20일(화), 8월 21일(수) 오후 8시(하상관)  
 • 참고 : 8월 22일(목) 오후 8시(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 8월 23일(금) 오후 7:30 미사 중  
 • 환영식 : 8월 25일(일) 오전 11:30(B-1,2)  
 • 문의 : 원철희 토마스 (703)203-0332

**6** **유아세례**

• 일시 : 8월 25일(일) 오후 3시  
 • 신청 : 8월 23일(금)까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8월 25일(일) 오전 11:30(B-3)

**8** **정신건강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8월 25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 "마음의 힘 키우기"  
 • 강사 : 권미경 모니카 박사  
 (HopeSpring 아동 가족 상담소장)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9** **복사단 모임**

• 일시 : 8월 25일(일) 오후 1시(B-1,2)

**10**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  
 • 신청 : 9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1-0333

**11** **2019 - 2020년도 주일학교 등록**

• 신청 : 8월 25일(일)까지 10시 미사 후, 하상관 로비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371-3589

**12** **하상 성인학교 강사회의(2019년 가을학기)**

• 일시 : 8월 25일(일), 오전 11:30(A-3)  
 • 성인학교 강사 여러분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올리아나 교장 (703)217-2775

**13** **하상 성인학교 2019년 가을학기 등록**

• 교육 기간 : 9월 10일(화) - 12월 6일(금)  
 • 등록 : 8월 11일(일) - 9월 8일(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주보대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상 성인학교 점심 봉사자 모집 : 가을학기 금요일  
 점심 봉사자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 올리아나 교장 (703)217-2775

**14** **2020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

• 2020년 본당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600)

**15** **빠뜨리치안회 첫 모임**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빠뜨리치안회는  
 신자로서 갖는 고민들을 나누며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주임신부님과 함께 하는 빠뜨리치안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8월 25일(일) 오후 2시, 친교실  
 • 주제 : 묵주기도  
 • 대상 : 관심 있는 모든 교우분들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304-2129

**16** **생명존중 컨퍼런스(알링톤 교구 주최)**

• 일시 : 9월 7일(토) 오전 8시 미사로 시작  
 (알링톤 교구 주교님 집전) - 오후 12:30  
 • 주제 : 말기 환자 치료의 중요성  
 • 강사 : M.C Sullivan(nurse-bioethicist, attorney/  
 current Chief Healthcare Ethicist)  
 • 등록 : www.arlingtondiocese.org/Family-life/  
 2019-Respect-Life-Conference/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18일(일)	연중 제20주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8시),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19일(월)	연중 제20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20일(화)	성 베르나르도 아바사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예비자 종합교리(오후 8시)
21일(수)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예비자 종합교리(오후 8시, 하상관 #110)
22일(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예비자 참고(오후 8시)
23일(금)	연중 제20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미사 중 제80차 영세식 및 견진식), 바오로 자매 모임(오후 8시)
24일(토)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 (오전 9:30), M.E. 봉사자 모임(오후 7시)
8월 25일(일)	연중 제21주일	새 신자 환영식(오전 11:30, B-1,2), 정신건강 세미나(오전 11:30, A-1,2),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30, B-3),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0주간: 시편 133-141, 2 코린 11-12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22일(목) 오후 5:00-6:00  
 8월 23일(금) 저녁 8:00-9:00  
 8월 25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산티아고 가는 길 : 산을 넘어 대 평원으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8월 11일(연중 제19주일)

주일헌금 ..... \$7,514.39  
 교무금 ..... \$7,6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3,720.00  
 특별헌금 ..... \$100.00  
 2차헌금 ..... \$5,518.00  
**합계 ..... \$24,502.39**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본당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명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보(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마카베),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셀(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베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나사시오), 제임스 리(초찬),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b> 이경태 요셉 703-785-4494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챌들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암 보험·메디케어 장기 간호 보험</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아리랑시니어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HOP 건너편) 703-543-6008	<b>프렌즈 홈/데이케어</b> 간병, 간호, 데이케어 서비스 문의: 임에스터 703-231-6030 데이케어 703-819-0360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b>원 통증·재활</b>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b>스킨 스튜디오</b>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 (안젤라) 703-507-005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박정훈(요한) 치과</b> Family Dentistry 알렉산드리아 병원 근처 703-679-8959	<b>HYN 부동산</b>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b>Commercial 김준부동산</b>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b>워싱턴 노인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글로벌 가정의학과</b> 방문진료, 무보험 환영 윤명희 (헬레나), FNP 703-935-9226	<b>제니스김 부동산</b> Keller William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b>대학 진학 컨설팅</b> 김도현(요셉) FCPS 교사 / 브라운대 입시 사정관 703-638-9998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재무설계</b>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b>DK 건강 보험</b> 메디케어, 생명보험 메디케이드 신청 도와드립니다.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b>경희 바울 한의원</b>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b>Well Skin Care</b> 오픈기념 특별 이벤트 애난데일, 한국일보 맞은편 703-627-7123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